**월드 거번먼트 서밋2018의 최대 화두… 여성의 능력신장 및 혁신**

UAE 외교국제협력부(UA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가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6차 월드 거번먼트 서밋(World Government Summit(WGS 2018)) 둘째 날 세계은행(World Bank) 및 산하기관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공동으로 여성기업가 기금(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 We-Fi)을 출범시켰다.

We-Fi 이니셔티브는 여성이 경영하는 전세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달러 이상의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서 림 에브라임 알 하시미(Reem bint Ebrahim Al Hashimi) UAE 국제협력부 특임장관은 “UAE 여성들의 성과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기금 출범은 여성 기업가들이 경제를 더욱 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했다.

‘제3차 여성혁명(The Third Women’s Revolution)’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아리아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 스라이브 글로벌(Thrive Global) 설립자 겸 CEO는 “우리는 장시간의 근무와 수면부족을 헌신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직장 문화를 비롯해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특히 여성은 노동에 참여하는 데 더욱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며 “여성은 직업적 성공과 자신 또는 가족과의 행복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Sheikh Hamdan bin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두바이 왕세자 겸 두바이집행위원회(Dubai Executive Council) 의장은 모든 두바이 정부 기관에 획기적인 혁신을 수용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두바이가 다른 도시들보다 10년 앞서나겠다는 목표를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인 두바이10X 2.0(Dubai 10X 2.0) 착수를 발표했다. 에너지, 교육,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방 정부기관들이 제안한 26개의 창의적인 이니셔티브들이 향후 24개월 동안 수행된다. 두바이10X의 첫 번째 단계를 통해 2017년 160개의 프로젝트가 개시됐다.

두바이를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바이 정부는 새로운 UAE 모니터 및 정보 수집용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 위성은 해양 환경 및 공기질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평가한다.

\*출처: AETOSWire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212006220/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www.worldgovernmentsummit.org/